

배포 일시	2022. 10. 5.(수)		
담당 부서 <총괄>	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	책임자	과 장 정수호 (044-201-3988)
		담당자	사무관 서형우 (044-201-4633)
		담당자	주무관 강성수 (044-201-3980)
보도일시	2022년 10월 6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0. 5.(수) 17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신안산선 (가칭)한양대역 출입구 추가설치로 더 편리하고 안전한 통학이 가능해집니다.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10월 5일 오후 3시 안산시청에서 “신안산선 (가칭)한양대역 출입구 추가 설치를 위한 협약식” 을 가졌다고 밝혔다.
  - 이번 협약식은 안산시(시장 이민근), 국가철도공단(이사장 김한영), 신안산선 사업자(이하 ‘넥스트레인(주)’, 사장 김일평)가 각 기관의 역할을 담은 협약서를 확정하기 위한 자리로, 부지를 제공하는 한양대학교(총장 김우승)와 최종적인 출입구 신설 승인 주체인 국토교통부가 함께 참여했다.
  -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안산선의 종점인 (가칭)한양대역의 출입구가 학교부지에 설치\*되어 한양대를 방문하는 학생·교직원 등은 승강장에서 학교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.
- \* (당초) 안산호수공원 부지 내 건물형 1개소 출입구 설치  
(변경) 학교부지 내 건물형 출입구 1개소 추가 설치

< (가칭)한양대역 출입구 부지 >



- 오늘 체결된 협약에 따라 ①안산시는 비용부담, 민원처리 협조 등, ②넥스트레인(주)는 추가출입구의 설계 및 공사시행, 유지관리 및 운영 등, ③국가철도공단은 사업관리, 시설물 준공 확인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,
  -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변경 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할 계획이다.
  
- 국토교통부는 향후 건물형 출입구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면서, 한양대, 안산시, 넥스트레인(주) 등과 함께 건물형 출입구 상부공간과 역사 인근 부지를 활용한 청년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하여, 학생 및 사회초년생의 주거와 교통 부담을 한 번에 덜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.
  
- 국토교통부 정수호 철도투자개발과장은 “(가칭)한양대역 추가출입구 설치에 민자사업자,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협력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인 우수사례”라며, “앞으로도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,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” 라고 밝혔다.
  - 또한, “신안산선은 수도권 서남부 주민의 교통편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적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겠다” 라고 덧붙였다.

